

기관탐방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 건강관리센터



정 선 주 /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

서울에서 1시간 여 떨어진 안산 상록수역...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을 선도하기 위해 친절과 서비스로 무장한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 건강관리센터를 찾았다. 대행사업장 방문이 끝나는 시간에 하얀가운을 입은 채 마중 나와 준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띈다.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 건강관리센터에 8년차 근무 중인 정선주 선생님이다. 여름의 절정기 안에서 고즈넉한 도로를 따라 십 여분 달리니 하여 안산, 시화 등 경기서부북부지역 공단 근로자와 가족 그

리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선주 선생님이 자랑하던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이 녹음을 배경으로 눈앞에 나타났다.

산재의료관리원은 1936년 한국 최초의 산재병원 삼척탄좌부속병원에서 출발해 근로복지공사를 거쳐 1995년 산재의료관리원으로 재출범하였고 인천, 태백, 창원, 안산, 대전, 순천의 종합병원과 특수병원인 동해, 정선, 경기요양병원에서 의료사업과 산업보건사업,

재활공학연구사업, 의료재활사업을 하고 있다. 안산중앙병원은 안산지역 내 유일하게 528병상을 갖춘 공공 산업보건의료기관으로 기본적인 진료 외에도 진폐전문병동, 다양한 특수클리닉, 인공신장실,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건강관리센터는 1987년부터 반월과 시화공단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중·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대행사업, 보건예방사업, 종합건강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산중앙병원 건강관리센터의 산업보건관리인력은 총 25명으로, 보건관리대행팀 산업간호사 4명과 산업위생기사 2명, 작업환경측정팀 7명, 건강검진팀 9명, 행정팀 3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산업간호사의 경우 임상경력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보건경력만 4~10년 이상인 우수한 인재들로서, 3명의 선생님은 중규모사업장 일반 보건관리대행사업을, 다른 한분의 선생님은 보건관리지원 국고대행사업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원활한 사업장의 보건관리지원을 위해 작업환경측정팀은 2인당 1대의 차량을 지원해주며 산업간호사는 개인별로 각 각의 보건관리대행차를 지원하여 준다.

중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대행사업의 방문 주기는, 산업의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은 3개월에 1회, 100인 미만은 6개월에 1회로 사업장을 방문하며 교육요청 시 추가방문을 실시하나, 산업간호사는 안산의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수원의 화성 지역까지 정규적으로 일 2~3개소를 방문하며, 1개 사업장당 월 1회에서 최대 4회 보건관리지원을 실시한다.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를 위한 체류시간은 보통 1시간 30분에서 3시간여정도 걸린다. 올해 각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한 사업은

사업장별로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뇌심혈관질환 발병도 평가를 기초로 하여 사업장의 유소견자가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기방문 시 사업장관리카드와 보건일지를 통해 근로자의 보건관리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건강진단은 년 중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장별 특성에 맞추어 그에 따른 사후관리도 교육과 홍보 및 직접적인 간호를 제공한다. 사업장 건강진단 관련 서류는 3년 동안 보관하며 근로자의 건강관리는 건강진단 결과를 기초로 하여 연초에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계획을 세운다. 사후관리소견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유소견자(D₁)·일반질환 유소견자(D₂) 관리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조치해 주며, 다음으로 직업병요관찰자(C₁)와 일반질환요관찰자(C₂) 명단을 파악하고 추후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정상(B)근로자도 교육과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질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유소견자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체지방 측정, 비만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근로자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간호사가 10여년 이상 보건지도를 수행하고 있는 까닭에 사업장별 근로자의 파악이 용이하고 사업장에서도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로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한다.

보건관리대행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행기관도 있지만 안산중앙병원 건강관리센터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 사업장에서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건강 상담이 거듭되면서 유소견자가 100%완치되는 사업장이 생기고 점차 생활습관이 변

하여 자기 관리가 되는 근로자가 정착되면서 산업간호사의 발길도 바빠진다. 사업장의 거리가 멀어도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사업장의 건강검진 시 참관을 위해 미리 사업장에 나가서 검진을 준비하며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진행과정을 관리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차 검진의 어려움도 극복된다. 일단 내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검진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고 결과를 통해 사업장 방문 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보건관리사업의 고충을 문자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보건관리대행사업 수수료 인상 시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사업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 사업장처럼 느끼므로 인상계획서를 낼 때 담당자의 고충이 그대로 느껴진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져 방문사업장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미리 준비해야하며 산업간호사의 능력을 함양하고 배가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노동부 감사, 보건관리대행 자체 감사,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유인조사 및 예방프로그램 관련, 뇌심혈관질환예방 관련 등 공문서 작성과 같은 문서 작업도 꼼꼼하게 준비해야한다.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들이다. 보건관리업무에 대해 질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변하는

정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부와 한국산업간호협회,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위생협회에 수시로 접속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한다. 사업장의 요구와 특성의 다양성에 맞춰 보건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식과 깊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건관리대행사업의 특성은 사업장 외부에 있는 기관에 의해 보건관리가 제공되므로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보건관리대행기관과의 협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안산중앙병원 건강관리센터에서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고 사업장별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사업장 보건관리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사업장처럼 생각하는 주인의식을 갖춘 기관의 산업간호사가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안산중앙병원 건강관리센터가 보건관리대행 사업이 적극적으로 수행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준비된 산업간호사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진지한 눈빛으로 '근로자의 건강증진', '직업병예방', '건강한 작업장 만들기'가 각 사업장에 대한 산업간호사의 신념이라며 사업장 방문 준비를 하는 선생님의 하얀 어깨가 더욱 든든해 보였다.